

#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 군산시, 코로나19 격리시설운영 지역사회 확산방지 올인 인천공항발 시외버스 하차장서 선별진료...2차 감염 차단

군산시는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 해소와 감염질환 확산방지를 위해 자체 격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인 해외입국자 중 관내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가 운영하는 자체 격리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인천공항발 시외버스 하차장 군산시보건소로 지정해 해외입국자가 하차 후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해외입국자 스스로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나 자가격리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생활 여건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입국자는 원할 경우 자체 격리시설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 입소할 수 있다. 이는 해외입국자에 의한 가족들과 지역사회로의 2차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 조치이다.

이 밖에도 군산시는 재난문자와 시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외출차제 등을 당부하고, 최근 2주 이내 입국자와 추가 입국자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군산시 자체 격리시설 운영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가 지역 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주 이내 입국한 무증상 해외입국자는 무료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을 지참한 뒤 주소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청년포럼(이사장 김종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스크 1,000매를 구매해 군산시에 기부했다.

## 군산청년포럼, 마스크 기부 ‘훈훈’

### 성금모아 1000매 구매... 군산시, 취약계층에 무상보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정의 손길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군산청년포럼(이사장 김종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스크 1,000매를 구매해 군산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마스크 지원이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시민들의 마음만은 가까이 함께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온정으로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청년포럼은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소통창구’라는 모토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모여 2018년 설립한 단체로 각종 사회문화 활동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생계위협 택시업계 지원책 마련을”

### 박철원 익산시의원 촉구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최근 익산시 1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택시 승객이 크게 줄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충청남도도와 전라남도 등이 택시종사자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익산시에서도 택시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충남도와 전남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를 돕기 위해 종사자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박철원 의원은 “요즘 택시종사자들을 만나보면 기사님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면서,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생계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도 벌기 어렵고, 업계택시 종사자들은 사납금을 채우기도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면서 익산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지자체 재원으로라도 택시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승객이 현저히 줄어든 이 시점에서의 카드수수료 지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시내버스 운행 손실액 긴급지원금을 삭감한 것과 관련 “익산시의 1회 추경 실시 목적이 국·도비 매칭사업 긴급 추경인 점과 다른 운수업계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이라며 “시내버스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기에,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을 다시 계상한다면 예산을 승인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익산 다이로움’ 인센티브 20%까지 혜택

### 지역화폐 ‘다이로움’ 발행확대... 인터넷 쇼핑몰카드 활용가능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 안정화를 위해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 인센티브를 20%까지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익산시는 1일 ‘다이로움’의 발행액과 인센티브 적립 혜택을 대폭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이로움은 오는 6월까지 국비 8%를 지원받아 기존에 계획된 연 100억원 규모에서 300억원까지 확대 발행되며 인센티브 10% 적용 기간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 동안 사용금액의 10%를 다이로움 충전금액(페이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최대 20%까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 사용 시 일반업소는 60%, 전통시장은 최대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역화폐 활성화는 물론 경제 안정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별 인센티브 적용 구매한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개인별 월 50만원, 연 500만원으로 구매금액이 한정됐지만 월 100만원, 연 800만원까지 확대돼 월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카드 이용대상이 인터넷 쇼핑몰까지 확대됐다. 익산시는 지난 24일부터 개인쇼핑몰을 제외하고 탐마투와 익산물 등 지역 생선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도 다이로움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다이로움’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유관기관, 기업 등과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참여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당장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 익산시가 발행한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9억여원 규모로 총 1만 7천여명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 화학물질관리지도 홈페이지 개제

군산시가 시민 누구나 화학사고 대처요령 및 사업장 정보 등에 관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시 홈페이지에 개제했다.

화학물질 관리지도에는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정보, 취급하는 화학물질, 대피소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행동요령 및 97종의 사고 대비 물질 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지도는 군산시 홈페이지

지 → 생활복지 → 환경 → 화학물질 관리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카페명 :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민들)를 활용해 화학지도와 함께 관련소식 제공, 질의응답 코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안에 위치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위치를 파악해 인근 대피장소 확인과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화학지도뿐만 아니라 생활 속 화학물질 사용 저감방안, 안전한 대피요령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 지역 소식통

### 군산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

1일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중신)를 열고 제226회 임시회를 4월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예산을 포함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현 상황에 맞춰 군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앞으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시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추경예산을 지체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군산=김정훈 기자

### 원광대 자연식물원 폐쇄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식물원 일원으로 지난 31일부터 자연식물원을 폐쇄했다.

또한, 대학 정문을 제외한 모든 캠퍼스 출입문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교내 다중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화된 관리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 개강에 이어 10일까지 4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통한 비대면 수업을 시행 중인 원광대는 온라인 강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비대면 수업 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익산=장영원 기자